

# 이통사 2030 청년 마케팅 눈길

### 기업의 젊은 이미지 강화 · 잠재 고객 대학생 · 직장인 · 군인 겨냥 통신서비스 열풍

2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군인 전용 통신 서비스, 직장인 맞춤형 추천 할인 앱...

이동통신사가 20~30대 고객을 잡기 위한 이색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젊은 직장인은 최신 트렌드에 밝고 경제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군인은 기업의 젊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잠재 고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고객층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가 LTE 요금제 이용,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도 20~30대 젊은층에서 두드러져 수익성도 좋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봄 축제가 열리는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젊은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

만 24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Y24요금제 홍보를 위해 이벤트 이틀도 Y24 캠퍼스 어택으로 지었다. 이 요금제는 나이 제한을 충족시키면 매일 3시간, 최대 2GB 데이터를 마음껏 제공한다.

KT, 'Y24 캠퍼스 어택'

SK, '직장인 T 라이프'

LG, 병사 수신 전화 무료

식·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직장인 특화 생활 서비스 'T 라이프'를 선보였다. 이 앱은 주로 출근, 점심, 퇴근, 주말 등 특정 시간대에 적합한 혜택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는 커피·베이커리 할인, 점심에는 외식·쇼핑 할인, 퇴근 시간에는 레스토랑 할인이나 무료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다. 혜택은 하루 4번(오전 6시·10시, 오후 2시·5시) 매일 업데이트된다.

T라이프는 20~30대 소비패턴을 집중 분석해 직장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장 위주로 제휴처를 확보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유하면 할인율을 높이는 프로모션도 병행된다.

LG유플러스는 60만명 국군장병을 고객으로 잡기 위해 톤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는 국방부의 병사 수신 전용 휴대전화 4만 4686대의 통화료를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병사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사들이 20~30대 고객을 잡기 위한 이색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KT(www.kt.com)의 만 24세 이하 고객 대상 전용 Y24요금제와 함께 하는 Y24 캠퍼스 어택 이벤트를 17일부터 서울 소재 5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

쓰는 수신용 휴대전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1원'을 써내 주목받았다. 군 발주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사실상 무료인 1원 입찰서를 써낸 것은 처음이었다. LG유플러스는 최종 사업자로 결정돼 141억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맞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군인 특화 요금제 '지켜줘서 고마워'와 '올레 나라사랑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군부대 폭행 사건 등이 터지면서 병영문화 개선 정책 중 하나로 병사들이 가족과 연락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병사 1인 평균 통신비가 1만9000원이고, 대부분 20대라 통신사 업자로서 매력적인 고객군이다. 장기 고객 가능성도 커서 이통사 경쟁도 뜨거워졌다"고 전했다. /안진수 기자

## '그놈 목소리' 신고포상금 1000만원

### 금감원 - 국과수,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 체결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로 추적 과학적 분석 범인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범인을 찾아내는 첨단 수사기법이 활용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첨단 수사기법인 기계학습에 의한 성분(聲紋)분석을 활용,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법으로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한다. 종전에는 전화사기범의 목소리 중심·변종 수법 등 홍보효과가 높은 것을 선별해 단순히 그대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지문처럼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범인을 찾는 데 활용하게 된다. 국과수가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http://phishing-keeper.fss.or.kr)

keeper.fss.or.kr)와 SK텔레콤 T전화를 통해 신고 접수된 500여건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수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는 총 9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성분분석을 통해 추출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분류해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이 목소리를 UCC 등으로 제작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국가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에는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진수 기자

## 수출입은행, 25억 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 사상 최대

수출입은행이 2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를 제외하고 국내 기관이 발행한 것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글로벌 본드는 ▲3년 고정금리 10억 달러 ▲3년 변동금리 5억 달러 ▲10년 변동금리 10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리는 3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은 3개월 리보 금리에 0.70%, 고정금리 채권은 미국 3년 만기 국채 금리에 0.775%, 10년 만기채권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0.825%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발행에는 314개 투자자가 참여했다. 투자주문에는 52억 달러가 몰렸다. 주요 투자자는 연기금과 보험사, 중앙은행 등 우량투자자다.

수은은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외화 자금을 해외건설, 플랜트와 자원개발 등 국가 기간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자

## ICT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디딤돌'

### IoT용 전파출력 기준 20배 상향 예고로 SK텔레콤에 호기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은 빅데이터산업 도약 계기

정부가 최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등 ICT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IoT용으로 활용되는 900MHz 대역 전파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지난 3월 행정예고했다. 신산업 활성화 차원이다.

주파수 출력이 높아질수록 낮은 전력으로 멀리 보낼 수 있다. 신호 도달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대비 3분의 1의 기지국만으로도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런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IoT 전용망 구축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IoT 전용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 중이다.

SK텔레콤은 IoT사업을 이란으로까지 확대하는데도 탄력을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이란 테헤란에 IoT망을 구축하고 500여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 검침 시범사업을 수행했는데 기술력 축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란 전역에 IoT 망을 구축하고 스마트 검침 서비스를 전력, 상수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란 정부가 먼저 사업을 제안해왔다"면서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 신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하는 선순환 계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한 빅데이터산업도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공간이 크다. 정부는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고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는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상 제약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적극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식별화 기준 등이 마련되면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빅데이터의 이용이나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비식별화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안진수 기자



##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9월 유럽 15개국서 출시

현대자동차가 오는 9월께 유럽 15개국에서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유럽 친환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유럽시장의 정책 지원 등을 업고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함께 다음달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인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올해 3분기 중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15개국에서 9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시장에서 아이오닉으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이다. 유럽시장은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

된 지역이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의 경우 구매지원금 지급(영국·독일), 보유세 면제(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 등록세 감감 및 면제(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의 정책적 지원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노르웨이에서 약 1만2000유로, 프랑스에서 1만유로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아이오닉 브랜드에 대한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는 다음달 양산을 시작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경우 지난 3월 1차 전기차 공모 결과에서 65%가 아이오닉을 선택한 점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

